



2차 자신학화 포럼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

평창 켄싱턴 호텔
10.04(월)~07(목)

2th

자신학화 포럼 위원회
Self-Theologizing Forum

이벽과 자신학화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권성찬 위원 (GMF대표)

2013년 설악포럼에서 '유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했었는데¹ 그 바탕 위에서 이벽의 성교요지,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학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한다.

I. 이벽은 누구인가?

이벽은 조선의 첫 기독교(천주교)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를 창립 성조(聖祖)라 부른다. 1754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서울 수표교 인근에서 살았다. 30여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1785에 소천하였다. 이벽을 중심으로 정약용 집안과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등에게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그들이 가진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다. 정약전, 약종, 약용의 이복 형인 정약현의 아내가 이벽의 누나였고 이들 형제(약전, 약종, 약용)의 누나는 이승훈의 아내였다.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이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계도를 첨부하였다.

1779년 당시 천진암(주어사에 속한 암자)에서 열린 강학회에 참여해 실학과 서학 위주의 학문 모임을 위해 참여한 여러 지인들과 토론을 통해 한국 최초 천주교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서울 수표교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교리를 연구하는 등 이에 따른 천주교 전파를 해 왔으며, 1784년에는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을 통해

¹ 참조: <https://stforum20.tistory.com/15>

권일신, 정약용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1785년 지금의 명동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어(을사추조사건) 잡혔다가 훈방이 되었으나 집안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 부친의 반대로 집에 갇혀 있다가 식음을 전폐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요지는 그가 기록한 글인데 서두에 '천학초함'을 읽고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천학초함은 마테오 리치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 중국인 이지조가 1628년에 마테오 리치 등 선교사들이 기록한 여러 책들과 자신의 글을 포함하여 출간한 당대의 기독교 총서와 같은 것이다.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글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이벽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연보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1754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에서 탄생

1779 : 천진암 강학회에서 여러 실학자들과 천학에 대해 변증

1783 : 북경에 가는 이승훈에게 천주교회를 방문하여 세례를 받고 오도록 요청

1784 : 이승훈에게서 세례(세례요한)를 받음

1785 : 명례방에서 모임을 가지던 중 발각되어 집 안에 갇힌 상황에서 사망

II. 聖教要旨 (성교요지)

1. 서론

본문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성교요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성교요지는 이벽이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 지은 글이다.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문본은 4자의 운을 맞춰 기록이 되어 있고 각 주제마다 주석이 붙어 있어 비록 원본에는 장의 구분이 없지만 주석이 구분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 49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49장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이성배 교수의 구분을 따라 3편으로 나눈다. 1편은 성경을 요약한 부분이며 2편은 유학경전과 성경의 가르침을 연결하여 묵상한 글이며 3편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글이다. 즉 성교요지는 짧은 글이지만

성경과 문화와 자연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성교요지는 '만천유고'라는 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천유고'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이벽, 정약전, 이가환 등이 남긴 글들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만천유고'의 위작설도 최근에 와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안에 실린 성교요지도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선교사였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마틴(1827-1916)의 '쌍천자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성교요지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 따라서 '쌍천자문'의 1897년 수정판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필자는 그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 이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외적 증거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고 '성교요지'를 이벽의 글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한가지 언급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문서의 외적 증거에 의존하기 보다 본문의 내용인 내적 증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쌍천자문'은 신임 선교사들의 중국어 입문을 돕고자 마틴 선교사가 쓴(더 정확히는 수집한) 것이다. '성교요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벽의 글이 마틴 선교사를 돕던 중국인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선교사의 중국어 입문 글을 가져다가 천주교 창립 성조의 글로 위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²

본 글에서는 이성배 교수의 유교와 그리스도교(2001, 69-121)에 있는 본문을 사용하였다. 본문 전체를 이곳에 담는 것은 발제의 성격상 맞지 않기에 '유교와 그리스도교' 책을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 글에서는 이성배 교수가 붙인 장제목 전체와 본문의 맛보기로 1장-3장의 본문만 실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이성배 교수가 붙인 성교요지 전체 장제목>

제1편 성서적 이해

1. 창조주 하나님 2. 인간성: 카인과 노아 3. 구세주 예수 4. 구속자 예수 5. 예수의 가족

² 마테오 리치가 중국(마카오)에 입국한 것이 1582년이고 첫 글인 교우론을 쓴 것이 1595년 이후이다. 알레니가 중국에 입국한 것이 1610년이고 성교요지와 비슷한 사자경문을 기록한 때가 1642년이다. 윌리엄 마틴이 중국에 간 것은 1850이고 쌍천자문의 초본은 1863년에 출간되었다.

(마리아, 요셉) 6. 예수의 주위 상황 7. 예수의 영세 8. 예수의 시험 9. 예수의 선교 10. 예수의 가르침 11. 예수의 업적 12. 예언의 성취 13. 사랑의 희생제사: 종말의 준비 14. 예수 일생의 끝 15. 예수의 심판

제2편 유학 경전의 지식

16. 수신 17. 어린애 18. 청년 19. 선비(士) 20. 농부(農) 21. 공장인(工) 22. 상인(商) 23. 제가 24. 치국 25. 평천하 26. 성(誠) 27. 원수 28. 그리스도인의 생활 29. 그리스도를 본받음 30. 선교사

제3편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노래함

31. 자연의 호교론 32. 하늘(하느님의 위대함) 33. 땅(하느님의 넓으심) 34. 시간(하느님의 영원성) 35. 산천(하느님의 아름다움) 36. 인간(하느님의 섭리) 37. 집(영혼의 순결) 38. 옷(영혼의 빛남) 39. 도구(덕행의 실천) 40. 보물(진리) 41. 음악(교회) 42. 꽃과 나무(인간의 내세) 43. 채소(가톨릭 교리) 44. 새와 짐승(하느님의 자비) 45. 물고기와 조개(영혼의 가치) 46. 벌레와 곤충(인간의 새 생명) 47. 죽음(그리스도인 생활의 권면) 48. 하느님(신앙생활의 실천) 49. 하느님 나라(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희망)

2. 본문 (1-3장)

讀天學初函 (독천학초함)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

李曠庵藥 (이광암벽) 이광암 벽이

作註記之 (작주기지) 이 시를 짓고 주를 달다

1 장. 창조주 하느님

未生民來 미생민래 세상 사람 나기 전

前有上帝 전유상제 이미 상제 계시니

惟一眞神 유일진신 단 한분의 참된 신으로

無聖能比 무성능비 거룩함과 능력이 비길데 없고나

六日力作 육일역작 엿새 동안 힘들여 일하시어

先闢天地 선벽천지 먼저 하늘과 땅을 개벽하시고

萬物多焉 만물다언 세상 만물을 무수히 만드시니
 既希且異 기희차이 희귀하고 신기로운 것들이었도다
 遂辦和土 수변³화토 마침내 흙을 정성껏 빚어서
 捋爲靈矣 랄위영의 그 위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食處賜臺 식처사대 음식과 거처를 은혜로 베푸시니
 千百皆與 천백개여 그 수가 천백 개에 이르도다
 復使宜家 부사의가 그러고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자
 女兮往事 여혜왕사 여자를 또한 보내시어
 謂之曰夫 위지왈부 그들을 부부라 부르시니
 爾我如自 이아여자 너와 내가 한 몸이라 함이로다
 凡新求者 범신구자 사람이 새로이 얻고자 하는 것도
 毋不立豫 모불입예 모두가 못 얻을 바 아니었으되
 然欲善惡 연욕선악 선과 악을 알고자 하여
 勿聽手取 물청수취 손도 대지 말라 하심을 듣지 않고
 告云可食 고운가식 먹어도 된다는 꼬임에
 或當見耳 혹당견이 혹시나 보고 듣게 될까봐
 聞言摩掌 문언마장 감언에 속아 마수를 뺏쳤으니
 得罪因此 득죄인차 이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도다

右節記上主造 우절기상주조 윗절은 상주께서 많고 새로운 조물을
 物之多新以備 물지다신이비 창조하셨으니
 人之用也人奈 인지용야인내 이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何犯基禁令而 하범기금령이 어찌하여 인간이 그 금령을 어김으로써
 自取罪戾哉 자취죄려재. 스스로 죄와 허물을 뒤집어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³ 이성배 교수는 '변'이라고 적었다.

2장. 인간성: 카인과 노아

口傳亞伯 구전아백 아벨의 전승에 의하면
羊祭信心 양제신심 신심으로 양을 제사지내었더니
長子若兄 장자약형 맏아들 그의 형되는 이가
敵殺及今 적살급금 감히 그를 죽여 오늘에 이르니라
以致彼族 이치피족 이런 죄에 물든 저 족속들
但安利名 단안이명 부귀공명 안일만 일삼으니
愛身尼色 애신니색 내 몸 아끼고 여색에 빠지며
列馬羅金 열마라금 세력과 황금만 내세우도다
父意非昔 부의비석 아버지의 뜻 이와 같지 않았으니
其僕已明 기복이명 그 종에게 이 뜻을 밝히고
卽由是時 즉유시시 정해진 때가 이르자
大水四行 대수사행 대홍수가 사방에서 휘몰아쳐 왔도다
卷撒全死 권살전사 온갖 족속 흩어지고 몰사하게 되니
何問儕羣 하문제군 구원된 무리에 대하여 물을진대
第歸方蓋 제귀방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뿐으로
則同義人 즉동의인 그들이 곧 의인이었도다
居七從八 거칠종팔 일곱에 여덟쌍이 따랐으니
各拉入門 각랍입문 각자 그들을 방주 문 안으로 끌어 들였도다

右節記世人之 우절기세인지 윗절은 세상 사람들이 상주의
犯禁墮惡殘殺 범금타악잔살 금령을 범하여 악으로 빠져들어가 잔인, 살상,
貪暴造孽日深 탐폭조열일심 탐욕, 포악하여 죄를 짓는 일이 날로 깊어가므로
所以洪水橫行 소이홍수횡행 큰 홍수가 일어나 사방을 횡행하였는데 이는
上主賓惡其污 상주빈오기오 상주께서 그 더러움을 미워하신 때문이었으며
穢也非有義人 예야비유의인 만약 이때 의인이 아니었다면
則人類幾絕滅 즉인류기절멸 인류가 완전히 전멸하였을 것을 기록한 것이다.
矣尼暉也僕謂 의니닐야복위 니란 닐을 말하며 종이란 노아를 말하고
挪亞也方蓋方 나아야방개방 방개란 방주이다.
舟也居入者挪 주야거입자나 거입자란 노아와 함께 들어가서

亞眷屬共有入 아권속공유입 거처하게 된 가족 일곱 명을 말하며
 人從八者所有 인종팔자소유 종팔자란 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携潔畜牝牡各 휴결축빈모각 깨끗한 짐승이 암수 각각
 八也 팔야 여덟임을 말한다.

3 장 구세주 예수

故又督教 고우독교 고로 기독교라는 것은
 甚加世福 심가세복 세상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降下耶蘇 강하야소 예수를 내려보내신 것이니
 斯賓救主 사빈구주 사실 그는 구세주이시며
 等間于三 등간우삼 삼위 가운데 제 2 위이시고
 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륜에 나시어 오류에 머무시도다
 華年至展 화년지전 꽃다운 나이에 성전에 이르러
 在會受書 재회수서 모임 가운데서 책을 받으셨네
 相約衆士 상약중사 못 선비와 서로 언약을 맺으시되
 必知理數 필지리수 이치와 법도에 모름이 없고
 節禮守法 절례수법 예절과 율법을 지키셨으며
 司十二徒 사십이도 또한 열두 사도를 거느리셨네
 冷邊城邑 냉변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巴米道路 파미도로 파미도로를 건너
 猶太國也 유태국야 유대나라
 西乃山乎 서내산호 시나이 산도 있는 곳이라
 王而溫雅 왕이온아 그곳 왕의 온아하심은
 後章昭諸 후장소제 다음 장에서 밝히 노래하리라

右節記上主降 우절기상주강 윗글은 상주께서 예수님을 강생케 하시어
 救之故蓋深憫 구지고개심민 인류를 구제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世人迷於惡途 세인미어악도 대개 세인이 악의 길에 빠져 허덕이며
 不能自救故特 불능자구고특 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함을 가련하게 보시고
 降下愛子爲萬 강하애자위만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시어

世之救主也等 세지구주야등 세상 만세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間于三者耶穌 간우삼자야소 등간우삼이란
 在三位之中居 재삼위지중거 예수께서 천주 3 위 가운데
 於第二也倫出 어제이야윤출 제 2 위에 계심을 뜻하고
 於五者耶穌雖 어오자야소수 윤출어오란 예수께서 비록
 爲神子而出世 위신자이출세 하느님의 아들이나 세상에 나와
 誕育於人也 탄육어인야 인간으로 탄생하시어 양육되셨음을 뜻한다.

III. 자신학화 관점에서의 반추

1. 상황화의 공헌

선교사들이 식민지 시대의 정복(conquest) 패러다임에 대해 반성하고 대신 현지 문화에 맞는 상황화 (contextualized) 접근을 시작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게다가 상황화라는 접근을 단순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 문화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문화의 용어로 표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중국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1552-1610)와 그의 뒤를 이은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제사를 효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후에 상황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고 교황청에 보고하여 제사금지가 선포되었다. 조선에 천주교가 시작된 것은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배척 받아 해산되고 제사금지가 내려진 시기였다.

따라서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실천적인 면에서 상황화적이기 보다는 교황청의 교리적 입장이 강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유론'(補儒論)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한문으로 기록한 책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 책들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였기에 조선 천주교는 유교권에 상황화된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성교요지에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벽이 새롭게 네자씩 운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기록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레신부의 '四字經文'에 '未有天地 先有天主'(미유천지 선유천지,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천주께서 계셨도다)는 성교요지에서 '未生民來 前有上帝'(미생민래 전유상제, 세상 사람 나기 전 이미 상제 계시니)로 표현된다. 이벽의 성경읽기는 한자로 상황화된 형식과 내용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황화와 자신학화의 차이

상황화는 외부인인 선교사가 대상 문화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외부인의 시각(etic view)이라는 전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자신학화는 전달받은 것을 내부인의 관점(emic view)에서 반추한 것이다. 상황화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강조된다는 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자신학화는 상황화되어 전해지는 정보전달을 그대로 숙지하거나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에 더 집중하게 된다. 폴 니터(1985, 19)⁴는 헬라 문화로 전파된 복음은 상황화적인 전파가 아니라 자신학화적인 전파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헬라 사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헬라의 종교적, 철학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을 발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보유론', 즉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기독교로 유교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지라도 '보유'를 보는 외부인의 관점과 내부인의 관점은 차이가 있다. 외부인이 만든 상황화에 머물 경우 내부인은 스스로 읽고 해석함이 없이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만 남는다. 이에 반해 자신학화는 현지인이 깊이 반추해 온 자신의 자리에서(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구도자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더 긍정적이다) 진리를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 정보를 구분해 내고 본질과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

이벽이 읽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알레니 신부의 사자경문과 이벽의 성교요지 1-2 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⁵ 알레니의 글에는 천주교의 교리(지옥, 연옥, 영해,

⁴ 데이빗 보쉬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재인용 (2001, 301).

⁵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천주께서 계셨도다 육일동안 창조하셨으니 첫날에 높은 하늘을 만드시

영부), 아당과 액말(아담과 하와), 낙액(노아), 생과 양과 아불덕(샘, 함, 야벳) 등의 많은 정보가 짧은 글에 포함되어 있다. 성교요지에는 같은 내용을 다루되 하나님의 선재, 천지창조, 인간의 창조와 은혜, 죄와 그 결과, 의인을 통한 세상의 구원 등의 내용이 강조된다. 이벽의 성교요지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의 방식, 즉 자신이 탐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표현하며 그 새로운 표현은 단순히 문자의 변환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의미의 표현이다.

게다가 상황화는 수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면을 생각하느라 때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마테오 리치의 경우가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서의 성경번역도 이러한 예가 종종 있다. 이것은 상황화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외부인인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상황화를 시도할 경우 표면만 포용적이고 심층으로 갈수록 배타성이 드러나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신학화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재편성이 가능하다. 바울의 유대적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학으로 재편성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벽의 경우 서학에 관심을 가진, 더 정확히는 서학이 전해주는 과학, 문화, 사상 등에 관심을 가진 다른 실학자들과 달리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였기에 이벽의 자신학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중심이 된다.

어 무수한 천신들을 만드시고, 혼돈의 세상에 경도와 위도를 그으시고, 네 개의 큰 구멍이를 만드시니, 1은 영원한 고통(지옥)의 장소요, 2는 연옥이요, 3은 영해들이 가는 곳이요, 4는 영부(고성소)이로다. 여섯째날에는 수백가지 짐승들을 내어 살게 하시면서 땅을 꾸민 연후에 사람의 조상을 만드셨도다 남자의 이름은 아당이고 여자의 이름은 액말로서, 부부의 인연으로 우리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도다. 칠일째 첫째날에 이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며 천신의 무리가 오만하게 반항하여 그별로 영옥에 갇혔으나 주님께 원망하고 우리 원조를 해치려 유혹하였고 거역하고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오고 원죄를 지어 자손들에게 미쳤도다 2,245년에 많은 이가 악으로 주님의 의노를 불렀으니 주께서 명하시어 낙액에게 일독을 지으라 하시니 상하삼층에 처와 삼자부와 모든 종자들을 들이시고 홍수로써 사람들을 진멸하시고자 사십일 후에 강우로 별을 내리신 후 낙액 부자들이 육지로 돌아오니 장자는 생이요 차자는 강이요 세째는 아불덕이라

3.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에 대한 이해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부흥했으니 그들이 문화와 성경적 전통이 만나면서 새로운 신학이 등장할 것이며 이는 3-4 세기에 성경적 전통이 헬라 및 로마 문화와 만난 이래로 가장 창의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⁶ 월스가 예측한 이 일은 전통 문화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서구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18 세기, 당시 유교 문화가 있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동시에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이벽에게서 월스가 기대한 새로운 신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벽은 유교적인 바탕 위에서 특별히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였다. 세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벽은 성(誠)을 유교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탐구하였기에 그 틀을 통해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았고 두번째 이에 따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해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당시 형식에 치우친 유학과 유학자, 특히 세도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벽이 가진 틀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의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배 교수가 설명한(2001, 128-139) 천명(天命), 인(仁), 예(禮), 성(誠)등의 관계를 필자가 이해하는 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본래 공자 이전에는 하늘과 하늘의 뜻이 매우 중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천명을 받아, 하늘의 뜻인 천의(天意)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때 하늘은 어떤 기운이 아니라 ‘의지와 뜻을 가진 위격’(2001, 209)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명을 빙자한 일이 빈번해지자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여 먼저 인간이 되도록 힘썼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 지켜야 할 바른 관계이고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예(禮)이다. 제사는 예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이

⁶ Andrew F. Walls, “Rethinking Mission: New Direction for a New Century,” *Mission and Theology* 8 (2001): 265-6

완성되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성(誠)이라 하였다. 성은 공자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중용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벽은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誠),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룬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벽은 공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이 '성'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그 이루어진 말씀의 신비, 하늘의 도리와 인간의 도리가 합일되는 이치를 깨달았다(16-30 장)"(이성배, 2001, 139).

故又督教 고우독교 고로 기독교라는 것은
甚加世福 심가세복 세상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降下耶蘇 강하야소 예수를 내려보내신 것이니
斯賓救主 사빈구주 사실 그는 구세주이시며
等間于三 등간우삼 삼위 가운데 제 2 위이시고
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륜에 나시어 오륜에 머무시도다 (1 장 중에서)

윗글에 보면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가운데 2 위이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이다. 이성배 교수의 말처럼 이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誠), 즉 하늘의 뜻과 땅의 도리가 합일되는 것을 보았다면 이는 유대의 복음이 헬라 문화에 연결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앤드류 월스가 분석한 복음 전파의 3 단계, 즉 바울과 같은 선교사 단계 (missionary stage)와 저스틴과 같은 회심 단계 (convert stage)와 오리겐과 같은 재형성 단계 (refiguration stage) 중에서 이벽은 저스틴과 같은 회심 단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헬라철학의 틀을 가진 저스틴에게 신약만 주어졌다면 회심은 어려웠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단일 원리로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원형(씨앗) 로고스(logos spermatikos, the seed-bearing word or reason")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저스틴의 회심은 모두 구약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발견이 결국 헬라 철학 안에서 신학이 발전하는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벽이 성(誠),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한 것이 계속해서 발전했다면 당시 문화 안에서 새로운 신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그가 이해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륵에 나시어 오륵에 머무시오다)는 '이치와 법도에 모름이 없고'(必知理數, 필지리수) 예절과 율법을 지키셨으며(節禮守法, 절례수법) 고대 사기에 통달(通達古史, 통달고사)하신 분이였기에 참 인간으로서 삶의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이 더욱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벽은 선비(19 장)에 대한 글에서 부패한 권력을 바리새 무리(法喇塞朋, 법리새붕)로 표현하는데 바리새 음역에 모두 입구(口)를 넣었다. 이성배 교수는 이를 가르켜 "복잡하고 내용없는 말만 지껄이며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자학자들, 즉 조선 사회의 선비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비겨 비판한 것"이라고 보았다(2001, 92).

이와 같이 이벽은 유교를 통한 진리탐구의 결과 상황화되어 전달된 복음, 즉 구약에서부터 출발된 이야기를 통해 하늘과 땅의 연결자로서 성(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仁), 바른 삶을 살아내는 예(禮)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일되는 자신학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벽이 좀 더 살아서 제사와 예법이 발달된 유교의 바탕 위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제사 등을 반추했다면 새로운 반추가 나왔을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다.

4. 새롭게 이해하는 인간과 자연

이벽에게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교리를 취하는 방식(개종)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자신이 이미 경험한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까지(회심과 자신학화) 나아간다. 자신학화의 목표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문화 혹은 자신의 문화에서 이해한 인간과 자연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를 갖고 방향을 정렬하는 것이다.

여러 인간에 대한 글에서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한 후에 끝 부분에 결말을 내리는데 어린 아이는 원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하며, 청년은 힘써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선비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농부는 수확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해야 하고

공장인은 바른 도를 사모하고 구하여야 하며 상인은 보물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예로 이벽은 '평천하'(이성배 교수의 제목)에서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崗磬晨屆 강반신계 새벽부터 높은 산에 오르고
湖漢星遷 호한성천 밤에는 망망한 대해를 건너
延緞藥送 연하약송 병자에게 약을 보내 생명을 건지고
需饑糧捐 수기량연 흥년엔 식량을 풀어 굶주림을 건지네
偏側陸奠 편측육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두텁게 돌아올리고
圯壞岸墜 이괴안건 무너져내린 흙다리를 견고하게 바치며
那肯鬪隙 나금투극 싸움없는 여가를 편안히 즐기도록
蕪穢侵牽 무예침견 거친 땅과 무성한 잡초를 다듬고 뽑아 고른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지금은 죄의 결과로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緬迹朔勳 면적삭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업적을 이야기하나
儘鮮缺漏 진선결루 원초의 순수함을 상실한 후로 결함과 허점투성이라

하늘에 대한 글에서는 모든 이치를 보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며 땅에 대해서는 광대함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흐르니 하나님의 영복을 찾으라 말한다.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와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을 깨닫도록 권유하고 있다. 옷에 대한 글에서는 외모의 장식보다 영혼의 구원을 찾으라 말하며 물고기와 조개, 벌레, 곤충 등에 대한 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 권유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벽의 관찰은 그 지식도 놀랍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통합적인 사고도 놀랍다. 자신학화의 바탕에는 자신의 문화에서 진리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문화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자신학이 나올리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교수가 '선교사'라고 제목을 붙인 성교요지 30 장으로 글을 맺는다.

30 장. 선교사

振枯援單 진고원단 주린 자를 살리고 외로운 이를 돌보며
 宥勇伸囚 유용신수 회개자를 용서하고 죄인을 해방시키며
 苗系齊魯 묘계제로 제나라와 노나라의 자손들같이
 品格呂歐 품격여구 여상과 구양수의 품격을 심고
 朔夏盤蹈 삭하반도 먼 북쪽으로부터 중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核斗辨州 핵두변주 저물면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잡고
 暨寒迄熱 기한흘열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曳杖緯球 예장위구 지팡이를 끌고 지구 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다

<생각해 볼 주제들>

- 1) 상황화와 자신학화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자신학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2) 한국(동양)문화와 성경적인 전통이 만나 생기게 될 새로운 신학의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3) 위 발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가계도:

